

지방노동사무소 및 근로복지공단 유치 건의안

의안 번호	180
----------	-----

제안년월일 : 1998. 2. 26

제안자 : 박영웅의원의외 5인

1. 주 문

- 서산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 보령지방노동사무소와 근로복지공단보령지사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서산지역 사업체의 근로감독 및 노사지도와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않되고 있는등 행정의 효율성이 없어 두 기관을 서산시로의 이전 또는 출장소 설치를 건의 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보령지방노동사무소와 근로복지공단보령지사는 당초에 탄광근로자를 위하여 보령시에 설립되었으나 최근들어 광업의 퇴조로 인해 탄광근로자가 격감 하였고
- 두 기관의 관할구역 7개 시.군중 서산시 근로자수는 약 28%, '97년도 산업 재해 발생은 약 40%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서산시의 발전을 고려하여 두 기관의 서산시로의 이전을 요구하며
- 두 기관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노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

3. 건 의 처

- 노동부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웅진 국회의원

지방노동사무소 및 근로복지공단 유치 건의서

존경하는 노동부장관님!

경제난 극복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에 총력을 다하고계신 장관님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산시는 지난 10여년간 급속한 산업화를 거쳐 충남 서북부 해안권 개발의 선두주자로서 2000년대 중국교역의 배후지원도시로의 착실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결과 대산에 삼성, 현대등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하여 330여개 업체에 12,202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현재 조성중인 대죽공단과 현대우주항공, 현대정공이 본격가동되는 2002년에는 610여개 업체에 근로자수가 70,900여명에 달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 및 노사지도와 근로자의 산업제해보상과 복지증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노동사무소와 근로복지공단이 원거리인 보령시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산업제해로 인한 신속한 보상이 않되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제해를 은폐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시간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의회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고용촉진과 산업제해예방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다 음

1. 보령지방노동사무소와 근로복지공단보령지사를 서산시에 이전하여 주십시오.

두 기관은 당초에 탄광근로자를 위하여 보령시에 설립되었으나 최근 들어 광업의 퇴조로 인해 탄광근로자가 격감하였고, 두 기관의 관할구역 7개 시·군중 서산시 근로자수는 12,202명으로 28%, '97년도 산업재해가 363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서산시의 발전을 고려할 때 두 기관의 서산시로 이전은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2. 보령지방노동사무소와 근로복지공단보령지사의 출장소를 서산시에 설치하여 주십시오.

두 기관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노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동부장관님!

이상과 같이 서산시민과 근로자 모두의 간절한 뜻을 모아 두가지 방안을 건의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의 효율화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의드린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 3.

서 산 시 의 회 의 장 김 관 기